

# 자치도, 이시카와현 지진피해 지원

### 김관영 도지사 등 대표단, 15~16일 우호지역 이시카와현서 공공외교 활동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규모 지진피해를 입은 우호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한 주민들의 일상 복귀 등을 격려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대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미래지향적 도서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을 찾아 벤치마킹에 나서는 것은 물론 2024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일본지역내 운영위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일본 이시카와현과 도쿄를 차례로 방문해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및 복구 상황 청취, 지역활성화 시설 시찰 및 정책 공유, 일본 한상 운영위원 면담 등 공공외교 일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시카와현은 전북자치도와 지난 2001년 협약을 맺고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발생으로 1,688명의 사상자, 23조 6천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도가 위로서 한과 긴급 구호금을 전달해 교류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시카와현지사와의 전화간담에서 하세 지사로부터 신간센 개통 등 지역 활성화 격려를 위한 방문요

청에 따라 이뤄졌다.

첫째날인 15일에는 도쿄 재일전북도민회 간담일정을 시작으로 하세히로시 현지사와 켄다 요시히코 현의장을 만나 큰 슬픔을 겪고 있는 현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현재 피해상황 및 복구 정도에 대해 공유받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16일에는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지역문화 등 여러 기능을 실현하는 탐구형 도서관을 목표로 일본내 가장 명소로 꼽히는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을 방문, 현립도서관의 기능·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공간활용 등 전북자치도 대표 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 가진다.

또한 폐업한 방직공장을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이시카와현 지역 활성화 대표 시설인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도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즐기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니가타주재 총영사와 간담을 통해 한일 지자체간 교류협력, 이시카와현과의 실질적인 교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쿄로 이동한 김 지사 등 대표단은 일본 한상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한인비즈니스 대회 전북 유치 협조에 대한 감사와 재일경제인들과 협력네트워크 강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까지 개최되는 2024 한인 비즈니스대회 참여 독려를 위한 본격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2023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 전북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최우수 선정 우수시군 총 2억원 재정 인센티브 부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고창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지원정책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각 시군에서 시행 중인 기업지원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를 추진해왔다.

평가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나눠 인구수 7만 이상 그룹에서는 최우수 고창군, 우수 진안군·무주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인구수 7만 이상 그룹에서 최우수 시군을 차지한 정읍시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및 애로해소 실적, 기업동향 파악,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최고점을 득점했다. 특히, 정읍시는 1기업에 공무원 1

명을 매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기업애로 및 고충처리 1담당제'를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기업 현장에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고창군 역시 대부분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기업애로를 위한 현장방문 및 애로해소 실적,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최고점을 득점했다. 고창군은 2023년 삼성물류센터와 용평리조트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진행하는 등 기업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3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되고,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그룹별 최우수 6,000만원, 우수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재정인센티브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전 시·군 확산과 추진 독려를 위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증액됐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개최

### 지역상생 협조사항 및 기관별 현안사업, 홍보사항 등 34건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전북혁신도시 지역상생과 소통을 위한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열린 이날 상생협의회는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전주시, 완주군, 교육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을 비롯한 12개 이전공공기관 등 총 1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자치도의 협조사항 8건을 비롯해 기관별 현안사업 및 협조·홍보사항 등 총 34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지역물품 우선구매 확대, 구내식당 휴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주차장 개방,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참여 등을 요청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창립 50년 및 이전 10년 기념행사와 혁신도시 지역주민을 위한 시즌별 ESG축제를 안내하고,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농업과화도서관 주말 개방 및 확대 운영 계획을 알렸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예비 창업자 패키지 지원사업,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자문지원사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도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모색했다.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과 소통을 위해 2015년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 10년간 34차례(이번 협의회 포함) 회의개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항이 논의되며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해 왔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글로벌 생명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전북혁신도시 지역상생과 소통을 위한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현안사업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실현을 위해서는 금융과 농생명산업 거점인 전북혁신도시 역할이 중요

하다"며,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관련 총사업비 1억3000만원 확보

### 교육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교육부가 시행하는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평생 학습 체제 고도화

로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이다.

전북자치도가 선정된 평생학습도시·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권소사업) 사업은 광역 차원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김제·고창·부안 총 3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는 '로컬공방을 활용한 모듈배움터 조성' 및 '로컬·MOOC 학습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인적자원 활용한 전북형 신규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마을을 누비는 '달리는 모듈배움터 학습버스'와 '배움페스티벌'을 통해 생활환경 내 근거리 학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혜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평생교육이 지역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도 시·군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2023 지역안전지수 개선노력 우수시군 선정

### 자치도, 남원시·무주군·순창군·고창군 도지사 기관표창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2023년 지역안전지수 개선노력 우수 시군'에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여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2015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항목을 각 지표에 따라 분석해 5개의 안전등급을 발표하고 있다.('24.2.19.)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22.4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시군 업무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시군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 시군 평가는 개선 노력도, 관심도 등에 대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실시했으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

4개 시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남원시는 소방, 경찰, 지역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태스크포스팀 마련 등 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고창군은 교통사고 예방 사업 확대·개선, 관심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무주군과 순창군의 경우 지수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및 등급 개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제 전년 대비 3개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